

## Magnetic attachment와 Konus를 이용한 무치악 수복증례

손병섭\* 장익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본 증례발표는 52세 여자환자로서 회생불가치아를 발치한 후 상악은 우측제일중절치, 좌측견치, 제일소구치, 제이소구치가 잔존하였고, 하악은 좌,우 견치가 잔존된 경우였다.

환자는 고리가 보이지 않는 심미적인 틀니를 원하였고 다른 전신적인 병력이나 치과치료에 문제는 없었다. 임상 및 방사선사진 소견상 상악중절치와 하악견치들이 1도의 동요도 및 1/2정도의 골지지를 받고 있었고 나머지 치아는 건전하였다.

본 증례의 초점은 “상악 고립 전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과 “하악의 견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맞춰졌다.

몇가지 치료계획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난 뒤 치료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상악: 고립 중절치 치근에 magnet설치, 나머지 지대치에는 4°경사 konus 국소의치

-하악: 양 견치치근에 magnetic attachment를 이용한 overdenture이로써 상악은 골지지가 좋지 않는 고립전치와 하악 견치를 magnet을 이용하여 해결하였고 심미성을 위해 konus 국소의치를 설계하고 외관의 veneering을 Targis로 처리하여 심미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하악 overdenture에는 metal housing을 이용하여 overdenture의 최대 약점인 파절에 대한 염려를 줄였다.

환자는 치료에 만족하였고 지속적인 recall을 통해 만족도 및 보철물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key words: isolated anterior tooth, konus, magnetic attachment, metal housing, Targis